

KTX역세권 어떻게 개발되나

광주역 38만㎡ 유통·음악·영화 복합단지

송정역 광소재·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광주시 연말까지 최종 개발 계획 확정 정부 제출

광주역, 광주송정역 일대를 개발하는 정부의 KTX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주의 광산업, 문화수도 조성 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된 특성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로,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사업이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특성상 전폭적인 국고 지원 없이 성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시 등 지자체는 정부가 연말까지 마련한 KTX기본구상안에 예산지원 등 재정방안을 담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광주역·송정리역 개발 방안=광주시는 광주역 일대 38만900㎡, 광산구 광주송정역 31만9천800㎡를 개발 가능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가 검토 중인 개발 구상안에 따르면 송정역 일원은 평동·소촌·하남·산단 등과 연계해 광소재, 친환경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벤처 기업 등을 유치해 광산업

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물류유통시설 및 전문상과 등이 조성되고 R&D 특구 관련 시설이 배치된다. 또 테마 위락시설, 복합스포츠 센터, 음악·영화 등 공연예술 복합센터도 들어선다.

특히 현재 광주송정역 역사를 신축하되 복합환승시설·역무시설을 갖춘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고 역사 주변에 대형할인점, 전문상과, 비즈니스 호텔 등을 건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광주송정역 역세권 개발 효과를 도심으로 확산하기 위해 역 주변에 물류 유통시설, 병의원, 특화 연구단지, 기념관, 음악홀을 조성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광주역 신역사를 복합역사로 개발하고 침체된 주변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광주역 주변에 7만㎡ 규모의 복합테마 유통시설을 건립하고 지식기반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관된 음악·영화 복합단지, 박물관, 콘서트홀 등을 건립하는 애니 경로되고 있다.

또 침체된 광주역 역사 주변 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동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회사들이 머물 수 있는 오피스텔, 비즈니스 파크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인·허가를 쉽게 하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속도감 있게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반경 500m 거리의 직접 역세권과 반경 2~5km 거리의 간접역세권을 포함하는 통합 구상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역·송정역 역세권 개발계획이 가시화된다면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며 ‘이같은 대형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해 KTX 역세권 주변의 응적률·건폐율을 종전보다 완화해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동대구역, 용산역, 광명역 등 가운데 1~2곳을 내년 초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인·허가를 쉽게 하고,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속도감 있게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반경 500m 거리의 직접 역세권과 반경 2~5km 거리의 간접역세권을 포함하는 통합 구상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역·송정역 역세권 개발계획이 가시화된다면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며 ‘이같은 대형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청렴한 직원만 清門으로 출입”

광산구청 조선시대 ‘청(淸)·예(例)·탁(濁)문’ 재현

조선시대 공직자들에게 청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웠던 ‘청(淸)·예(例)·탁(濁)문’이 광산구청사에 재현됐다.

광산구는 최근 구청사에서 전갈길 광산구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예문·탁문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사진>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1488~1544)은 궁궐 안뜰에 3개의 문을 세워 청렴한 사람을 청문으로, 예사(보통) 사람은 예문으로, 부정한 사람은 탁문으로 출입하게 해 청백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다.

이후 대부분의 고관대작들이 예문을 통과하는데 비해 송강 조사수(1502~1588)만은 당당하게 청문으로 드나들었는데 아무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는 청백리였다.

구 산하 공직자들은 기념식후 모두가 청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에 앞장서 기로 하는 등 청렴문화 구현을 다짐했다.

구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이 조짐이 나타나자 청·예·탁문 설치를 계기로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실시했던 강도높은 혁신운동을 재점화 시켜서 서남권 중주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공직자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전갈길 구청장은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옛 선人们的을 본받아 광산은 청백리의 고장으로 만들고자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모두가 땃벗어 청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부끄러움없이 청렴하게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광산구는 주민명예 감사관제, 주민 참여 예산제, 행정불만 정보제공 보상제,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기원기자 wtkeee@

LPG 업체 담합 과정금 1조원

공정위, 12일 부과…소주업체도 최고 1천억대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일소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적발된 업체에는 일별백계 차원에서 막대한 과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 등 LPG 업체가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1조원 대의 과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출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주업체도 다음 달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업체를 포함해 10여개 소주업체가 과정금 부과 대상”이라며 “소주업체의 연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과정금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주업체들에 대한 과정금은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천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여개 국내외 환공사들은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로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재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다. 공정위는 과정금 규모가 상당한 데다 외국 업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재 안건 상정은 내년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국 30여 개 지역에 있는 200여개 주유소의 판매가격,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급하는 4개 제약사의 공급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9~20일에는 15개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4대강 터키공사 입찰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앞둔 기업들이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CGI센터 기공 CGI(Computer Generated Image)센터 기공식이 9일 광주시 남구 송암산단 내 건립부지에서 열린 가운데 박광태 광주시장, 문화산업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기공식을 축하하는 박수를 치고 있다. CGI센터는 컴퓨터 특수영상을 제작하는 거점시설로 오는 2011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위기자 jwji@kwangju.co.kr

광양 신금일반산업단지 2009년 11월 16일 분/양/접/수



천강항만의 도시에서 조선산업의 메카로 떠오르는 광양

그 곳에 S-클래스가 있습니다.

분양문의

061)795-0987

